

협회와 함께 성장한 나의 호스피스 20년

서은경(아가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니 지금은 95세가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넌 오늘도 호스피스(?) 가니? 힘들게 남의 초상에는 왜 쫓아다니냐' 걱정하시던 말씀이 떠오른다.

1996년 4월 사순 시기에 주보를 보면서 처음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엘리자벳 퀴블러로스의 책 '인간의 죽음'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고, 늘 설레는 맘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곤 하였다.

매달 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호스피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매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의 세미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김장철이 되면 짓갈 판매도 하고 봉사자 교육도 받았으며 국회 앞에 가서 항의시위도 하였다. (오늘날 연명의료법에 일조했나?)

처음엔 병원 교육과 협회 일도 구분 못 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몇 년 열심히 다니다 보니 병원 일과 협회 일도 구분이 되고, 서울성모병원이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소속된 것과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 호스피스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봉사에 깊이 참여하면서 협회에서 하는 학회도 참석하고 공부하여 상황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열심히 협회 일 하시는 분들 덕분에 처음보다는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법인도 되고 체계가 잡히는 협회를 보면서 봉사자이지만 뿌듯하기까지 했다.

2001년 협회 주최로 가는 호주 견학에 참석하면서부터 다른 나라의 호스피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시아 호스피스 대회에도 참석하여 다른 호스피스 제도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과 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호주 호스피스완화의학 전문가이신 이안매독 박사님께서 한국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달려있는 많은 주사제와 호스피스봉사자들은 환자들에게 육체적 도움이 아닌 성서와 성가책을 가지고 다니며 영성적으로만 접근 한다고 하실 땐 동감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에 관련된 병원이나 봉사자들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 시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실상을 잘 대변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말한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처음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환자의 말동무와 마사지, 목욕 등을 해드리며 복도에 떨어진 휴지라도 줍는 심정으로 시작했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21년의 세월 동안 만난 환자분들과 협회, 병원에서 제공한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전문 호스피스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처음 봉사할 때는 환자만 돌보는 것이 보람이었는데 협

회 교육과 병원 교육이 나를 차츰 성장하게 해준 것이다.

21여 년이 지난 오늘도 어떤 환자를 만날

까 하는 설렘으로 병원으로 봉사의 발길을 옮긴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평생회원

서은경, 송일권

▶ 신입회원

- 개인: 이나희

- 국제성모병원: 장정화, 전수민, Sr.신옥진, 최경애, 권금혁, 방진영, 임경은, 나선미, 박수화, 이유진, 김나연, 장미지, 장혜지, 주진하, 김소연, 임승미, 고희진, 이다연, 김경미, 서화연, 김정영, 남강현, 김은화, 박연옥, 이수민, 김남신, 김순유, 고득남, 김유경, 김삿별, 임영주, 송영선, 모정애, 조수홍, 김인순, 문남숙, 임희숙, 최경여, 박원실, 김진선

- 대전성모병원: Sr.권소영, 서미숙, 김현숙, 이호동, 김은정, 유정희, 김채연, 김민주, 안목환, 신정민, 김명희

- 부산성모병원: 윤명숙, 김진양, 이명숙

- 부천성모병원: 한원순, 김태훈, 박경옥, 윤미경, 이은순, 양세정

- 서울성모병원: 손병성, 이현영, 윤정윤, 김은율, 김영순, 조대연, 정은실, 이경숙, 정진영, 김경석, 최정애, 신재열, 임성준

- 성가롤로병원: 장정임, 차영주, 장정남, 이정자, 고슬, 손소미, Sr.김영규, 배동임, 이금숙, 오순심

- 성가복지병원: 김경희, 황문정

- 성바오로병원: 김원정, 이승은, 조혜경

- 성빈센트병원: 성금영, 이소희, 서호영

- 여의도성모병원: 문서영, 박상아

- 익산성모병원: 이순자, 장석례

- 창원파티마병원: 김현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수

2017년 기관대표자회의 및 제10회 정기(대의원)총회: 서울성모병원, 익산성모병원

2017년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박은숙 후원회장

